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개강식 개회사

사랑하는 대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80억 전 인류의 미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실상을 직시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체험과 실천, 그리고 교류활동을 통해서 이 시대의 기후환경리더로 나서겠다는 다짐을 갖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내 삶을 지키고, 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겠다는 여러분의 열정에 찬사와 함께 무한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dana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향한 도전의 場,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신 ‘대자연’의 이해경 회장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저의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반기문평화기념관’은 평화·번영·인권으로 대표되는 유엔의 정신을 배우고, 제가 제8대 유엔사무총장으로서 10년 간 활동하면서 이룩했던 업적을 소개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교육의 산실입니다.

2015년 12월, 유엔 19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이끌어냈던 제가, 오늘 날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정신을 앞장서 실현하겠다는 대학생 여러분과 여기 ‘반기문평화기념관’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된 것은 실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대학생 여러분께서도 그 무엇과 비견하기 어려운 뜻 깊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오늘의 결심과 담대한 포부를 언제 어디서든 잊지말고 생활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구의 기후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라는 말을 지구가열화(Earth heating)로 바꾸고, 기후변화(Climate change)를 기후위기(Climate crisis)로 이미 오래 전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문제는 그 용어가 격렬하게 바뀔만큼 당장 긴급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게 될 비상사태(Emergency)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나오는 과학적 근거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기후환경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기후의 파국점(tipping point)인 1.5도 상승 도달 시점을 2018년 보고서에는 2030년에서 2052년 사이로 예측했었으나, 작년에는 새로운 보고서를 통하여 그 시점을 2021년에서 2040년 사이로 10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 배출량도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7% 감소했었으나 작년에는 오히려 2020년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작년에 탄소 배출량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아직도 자성하고 있지 못 하다는 것으로 크나 큰 실책이자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아내는 일은 ‘2050 탄소중립’,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산업과 경제의 발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 합니다. 인간의 탐욕에서 계속되고 있는 환경의 파괴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남용되고 있는 일회성 생활 도구의 사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지속가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길입니다.

국가 간, 기업 간, 그리고 세계시민 간의 연대와 협력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 위에 펼쳐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보다 많고 광범위한 기후환경 교육과 실천의 기회를 만들고

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은 미래를 열어갈 대학생 여러분들이 전면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창의적인 대안을 내놓고 실천할 때 그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구의 기후환경을 온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98개 대학교, 150명 대학생들의 마음과 행동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후환경 문제를 단지 지식으로만 담아둔다면, 앞으로의 기후위기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을 통해 얻게 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여러분이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두고, 세계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의미깊은 ‘반기문평화기념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